

미국 폴리머 시장 마진압박 “고전”

PE, 수요 줄고 가격 약해 타격 ... 원료코스트 강세로 가격조정 관건

미국의 주요 폴리머 시장은 국제유가가 담보 상태를 보이고 천연가스 코스트가 상승해 압력을 받고 있으며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압박이 겹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은 PE(Polyethylene) 시장에서 나타났는데 5월1일로 소급한 가격은 파운드당 2센트 하락했다. 다른 주요 폴리머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고, PS(Polystyrene) 및 PP(Polypropylene) 생산기업들은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가 더 상승하면 가격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들 역시 수요가 약하고 재고가 늘고 있다.

PE 가격의 하락은 ExxonMobil 및 Dow Chemical을 선두로 나머지 기업들로 확대됐는데 생산기업 및 전문가들은 급격한 수요감소 및 PE 가격하락을 기대한 컨버터들의 재고방출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기업들은 100만btu당 6달러 이상 반등한 천연가스 코스트가 가격하락을 정당화하기에 턱없이 높아 일부 플랜트의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올여름 가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Huntsman 역시 천연가스 가격을 크게 우려하면서 석유 대 가스 비율이 정상수준을 크게 벗어났다고 경고하고 있다. 천연가스 재고량은 2002년에 비해 8000억Cubic Feet이 부족했고 PE 수요도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북미는 유럽, 아시아, 중동과 달리 올레핀 생산의 70%가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며 30%만이 석유계이기 때문에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의 PE 수요 및 재고량

(단위: 10억파운드)

구 분	전체 PE 수요	생산기업의 Resin 재고일 평균
1월	2.9	35일
2월	2.7	33일
3월	2.6	38일
4월	2.3	50일

자료) Chemical Market Associates

북미의 올레핀 및 폴리머 산업은 올여름 당장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경규제에 직면한 많은 전력 플랜트가 천연가스를 원료로 채택할 것이기 때문이며 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면 또다시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Market Associates는 주요 생산기업들이 가격인하에 동의하고 있어 다른 기업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6달러 수준에 머무르면 PE 가격이 낮아 생산기업들의 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수요는 1/4분기 강세였으나 4월 크게 약화됐다. 수지 구매기업들은 1/4분기 모든 구매를 끝냈으며, 경기가 여전히 둔탁하기 때문에 수지 구매가 지연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P 수요 및 가격 또한 약세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기업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13억파운드에 가까운 낡은 생산설비 및 4억5000만파운드를 일시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PE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의 PP 가동률은 90%를 넘었는데 PE 가동률은 80대 중간에서 변동했고 Linear Low-Density PE 및 High-Density PE 가동률은 지난 4월 80% 밑으로 하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DeWitt는 높은 천연가스 코스트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4월 Ethylene 및 PE 수요가 20-30% 감소해 재고가 지나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진이 관건인데, 특히 백통합이 되지 않은 생산기업들은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또 Benzene 가격이 한 동안 보합세를 보였고 컨버터들이 폴리머 가격인상을 시도함에 따라 PS 기업들도 마진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PS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컨버터들 대부분이 가격상승에 앞서 3-4월 동안 구매에 열중함에 따라 5월의 주기절정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재고량은 정상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기절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재고증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BASF는 2003년 원료코스트 상승에 대응해 4번의 가격인상과 할증액 부과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의 가격인상은 일부 반대에 부딪혔으나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원료코스트가 더 오르면 할증액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SF는 또한 PS 성장률이 GDP와 병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시아의 원료코스트가 상승해 미국의 SM(Styrene Monomer) 시장이 안정되면 유도제품 가격이 강화돼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다.

Purvin & Gertz는 앞으로 몇달간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2년 겨울 재고량이 사상 최저로 감소했고 미국 및 캐나다 재고량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시장이 2003년 여름 수요를 맞추는 한편 재고를 재설할 수 있을 것인지가 염려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7/30>